

DSM, 중국 Melamine 12만톤 확대

CNOOC와 30대30 합작 ... 세계 최대규모 Stamicarbon 프로세스 채용

DSM Melamine 및 China National Offshore Oil(CNOOC)가 중국 Hainan Island의 Dongfang 지역에 Melamine 12만톤 합작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데, DSM이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CNOOC가 소유하게 될 전망이다.

Melamine 프로젝트 투자비용은 약 1억달러로 예상되며 2005년 1/4분기 안에 Dongfang 프로젝트 시행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DSM의 라이선스 사업부 Stamicarbon은 당초 CNOOC 및 Fudao Chemical이 합작으로 운영하는 Dongfang 소재 Urea 80만톤 플랜트에 기술을 이전했는데, Dongfang 소재 Urea 플랜트가 Melamine 12만톤 플랜트에 원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DSM에 따르면, Hainan Island 지역정부도 Melamine 12만톤 프로젝트를 적극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규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Melamine 12만톤 플랜트는 Stamicarbon의 기술을 채용하게 될 전망이다.

DSM은 Melamine 24만톤 생산능력을 보유한 세계 최대 Melamine 생산기업으로 주요 경쟁기업에는 Agrolinz Melamine International(AMI) 및 Zakłady Azotowe Pulawy가 있다. AMI는 최근중국 Guangzhou 지역에 분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DSM은 세계 Melamine 수요가 2003년 약 90만톤에 달했으며 연평균 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시장은 20만톤 규모에 달하며 연평균 10-20% 성장률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DSM은 중국 시장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세계 Melamine 생산에 있어서 1위를 고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DSM은 Sinopec과 합작으로 중국 Nanjing에 카프로락탐(Caprolactam)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기존 Sinopec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총 14만톤으로 60만톤 확대하고 프로세스 기술도 Stamicarbon 프로세스 기술로 전환시켰다. 2개 프로젝트는 모두 2005년 하반기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4/09/08>